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4호 [루게 제 24832호] 주체 104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 대내외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엄혹했지만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지난해 인민군대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국가방위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고있는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전선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의 군건설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도덕의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대정치추진으로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확대회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군건설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며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올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기세차게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대정치추진으로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지난해 인민군대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시하고 올해 인민군대의 투쟁방향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보다 굳건해지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후방사업토대가 튼튼히 꾸려져 군인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었다.

특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군대의 첫째가는 위력은 사상과 도덕의 위력이며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한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우월성을 우리 인민군대의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적들과의 대결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 인민군대에서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이를 위하여 인민군대의 기구체계를 정강화하며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할수 있게 기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권

과 전횡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날 우리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 군력강화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와 반드시 지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칠풍같이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부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천만군민이 백두의 넘과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에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백보흠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상계판인인 4.15문화창작단 작가 백여 22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 보흠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파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 전용기를 타고 미해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신 다음 현지에서 나오시어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날로 변모되어가는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자태를 보시면서 가까운 앞날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비품들도 최상의 수준에

서 제작하여 놓아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 팔신 문 《아르 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행만합신로케트시험발사를 보내주시신 소식,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 소식,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8건설국의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위대한 강령 선포 국제사회계가 격찬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인류해방투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국제사회계가 격찬하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그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과 함께 김정일명도자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일명도자께서는 데 대하여 천명하시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강령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표명하시었다. 그 과정에 선행한 혁명리론으로는 현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고 오직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으로 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1974년 2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에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것을 천명하시고 주체사상을 주석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주의로 연속히 선언하시었다. 예집신문 《알 라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은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천명하시었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강령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표명하시었다. 참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강령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였다.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실현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명도하시였으며 계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와 조선의 운명을 수호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철석이며 반제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무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자주위업수행의 기치인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혁명사상을 그분들의 존함으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새 세기의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탄생! 【조선중앙통신】



#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을 이렇게 접수하고 관철해야 한다

## 천지운활유 공장 지배인 계절동무의 사업을 놓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한몫 단단히 하는 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던 단위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비결이 있다. 당정책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된 단위라는 높은 평가를 주신 천지운활유공장만 보아도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일군들이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을 자기구구 학습하고 당정책을 모든 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여야 모든 일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어나갈 수 있습니다. »

천지운활유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 우리 당정책의 진수

오늘 당정책을 모르는 일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과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일군은 없었겠다. 그러나 당정책을 문자로 외운다는 것과 진수를 옮겨 파악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천지운활유공장에서 획기적인 도약은 2012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체인 12월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 가운데 미진했듯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끝까지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때부터 지배인에게는 하나의 수첩이 생겼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조항조항 수첩에 적어놓고 밀줄을 그듯 여러가지 색깔로 표시도 하면서 지배인은 그 뜻을 깊이있게 새겨보았다. 이 과정에 당정책을 문자로 외운다는 것이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따져보니 그것은 당정책을 내용적으로 인식하고 말로 글에 고이는 현상만 아니라, 자기 단위를 보아도 정책적 과업을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서 수행하고는 손쉽게 《집행》이라고 써넣는 경우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지운활유공장에서 주신 과업도 생산량에 대한 표시를 주셨다. 당시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색깔 좋고 질 좋은 바게트와 소맥이, 과일용기를 비롯한 수제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인민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했다. 때문에 지배인부터가 수제용기생산과업은 이미 집행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집행정도를 엄정하게 따져보니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실은 수제용기생산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던 것이다.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놓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상운영하여 실지 은이 나게

고난의 행군시기에 몸소 심혈을 바쳐 꾸려 주신 유복자공장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현지에 모시지 못한 공장이지만 장군님께서 생전에 주신 과업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다 당정책이 제시되어있고 많은 단위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와 통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지만 그 관철에서는 왜 차이가 생기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를 따라 배워야 할 공장,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큰대로 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천지운활유공장 지배인 계절동무의 사업경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 당정책 관철의 표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폐련은 당정책 관철의 요구이며 표대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야심만만 목표, 여기에 공화국의 위상이 있고 우리의 리상 실현이 단관속에서 활력을 잃지 않는 요인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꾼들은 하나의 당정책을 관철해도 올라선 높이에서 지나는 길이 아니라 최첨단을 향하여 부단히 돌진해야 한다. 계절동무지배인이 당정책관철에서 내세운 기준이 바로 그러하다. 천지운활유공장에서 최근 7년동안에 당도 3단계의 비약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발전속도를 압도하는 놀랄만 한 성과이다. 현대적인 유휴용생산공정이 일식으로 완비되며 이어 2차에 걸쳐 생산능력이 확장되어 수백종의 유휴용 생산공정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도 첨단 단위로 올라섰다.

공정에서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개발한다는 조종프로그램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힘을 합쳐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확립하였다. 제품포장공정의 로보트화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도량들이 경사진 골대 흐름선을 타고 이렇게 설계되고 개발되지만 로보트가 마개포장하고 상표 인쇄까지 하는 자동화기술의 높은 경지는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천지운활유공장은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이렇듯 눈부신게 비약적발전을 하게 된 요인이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지배인이 내세운 실천의 기준,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고 폐련을 뛰어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관철 사업을 오늘날이나 미래까지 내다보며 더 훌륭하게 설계하게 되었다. 결과 천지기술연구소에 첨가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이 생겨났으며 활발한 기술준비속에 첨가제생산공정확립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속품들이 넘어오는데 따라 타빈 작업장에서는 조립전투가 다투고 밤이 따로 없이 벌어졌다. 10여이던 긴장한 전투끝에 드디어 개조된 수직복합포가 정상가동을 시작하여 전력중산의 동음을 울리었다. 결실은 컸다. 종전에 비해 붐 프가동에 소비되던 전력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난문제나 나 서고있던 복구기술수위처리문제 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로 하여 저압제생가열기들의 가동이 정상화되어 같은 생산조건에서 도 하루 7만여kWh의 전력 이 더 생산되어나갔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이러한 성과를 만끽하고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력중산의 물과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발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고체유휴용역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계공업의 필수적인 요구로부터 출발한 2세대 유휴용역인 동시에 액체유휴용생선의 참가 제로도 리용할수 있는 첨가제였다. 따라서 고체유휴용생선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유휴용원료의 국산화에서 관건적인 고 려였다. 더 중요하게는 유휴용공업을 세계 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나라의 기계공업 발전에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바로 이것을 내다보신 것이었다. 그런데 2004년 당시 위대한 장군님의 과업을 받아안고 첫걸음을 땀 고체유휴용 생산의 원료보장을 위한 생산개발이 여러 가지 난관으로 중도반단되어 이 과업은 전담목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일련 의 조건이 있었다. 그때까지 세계적으로 고체유휴용생산은 아직 연구단계였다. 더구나 당면한 유휴용생산도 팽팽 내밀지 못하고 있는 공정의 형편에서 기술개발중인 고체유휴용생선의 공업화까지 내다보는것은 어방없는 일이라는 견해가 우세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전제들은 다 구실과 변 명에 불과하였다. 순간도 중단없이 그 관철 을 내밀어야 할 과업이 《전면적으로 집 행》이란 그럴듯 한 외피속에 감추어졌있 던 것이다. 그렇게 흘러보면 몇해사이든 세계적으 로 연구중에 있던 고체유휴용개발분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전제들은 다 구실과 변 명에 불과하였다. 순간도 중단없이 그 관철 을 내밀어야 할 과업이 《전면적으로 집 행》이란 그럴듯 한 외피속에 감추어졌있 던 것이다. 그렇게 흘러보면 몇해사이든 세계적으 로 연구중에 있던 고체유휴용개발분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전제들은 다 구실과 변 명에 불과하였다. 순간도 중단없이 그 관철 을 내밀어야 할 과업이 《전면적으로 집 행》이란 그럴듯 한 외피속에 감추어졌있 던 것이다. 그렇게 흘러보면 몇해사이든 세계적으 로 연구중에 있던 고체유휴용개발분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배인은 당정책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 면 이처럼 엄청난 후과가 빚어진다는데 대 하여 그때처럼 뼈아프게 새긴 데는 없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서는 고체유휴용개발 이 가장 첫째가는 정책과업으로 되었다. 당정책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고체 유휴용연구소로 새로 꾸러지고 비생산 열의 로 충만한 탐구와 창조적의 날이 이어진 속 에 고체유휴용생산공정은 짧은 기간에 확립 되었다. 원료보장을 위한 생산개발이 다시 진척되어 2세대유휴용과 발전된 몇개 나라 의 독점로만 남았을수 없게 되었다. 이 제품은 기계부품들의 수명을 5~6 배나 늘이는것으로 하여 도입시절만되어서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2세대유휴용의 개발은 우리 유휴용 공 업이 올라선 경지를 보여주는 자랑찬 한 성과인 동시에 이 공장 일꾼들의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옛날수 는 속도이기도 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배인은 원료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관철 사업을 오늘날이나 미래까지 내다보 며 더 훌륭하게 설계하게 되었다. 결과 천지기술연구소에 첨가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이 생겨났으며 활발한 기술준비속에 첨가제생산공정확립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속품들이 넘어오는데 따라 타빈 작업장에서는 조립전투가 다투고 밤이 따로 없이 벌어졌다. 10여이던 긴장한 전투끝에 드디어 개조된 수직복합포가 정상가동을 시작하여 전력중산의 동음을 울리었다. 결실은 컸다. 종전에 비해 붐 프가동에 소비되던 전력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난문제나 나 서고있던 복구기술수위처리문제 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로 하여 저압제생가열기들의 가동이 정상화되어 같은 생산조건에서 도 하루 7만여kWh의 전력 이 더 생산되어나갔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이러한 성과를 만끽하고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력중산의 물과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당정책을 결코 문자로 대하지 않는 지배 인의 투철한 관점과 일본새는 생산물에만 비껴있지 않다. 이 단위를 돌아보면 희한한 생산건물들과 현대화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생산공장 그리고 축산과 수산, 버섯과 은실농사를 비롯한 그야말로 백과전서인 당정책이 어느 하나 빠진데없이 구석구석 까지 관철되고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생산건물과 주변환경을 훌륭히 꾸리는데 그치지 말고 정상관리를 잘할데 대한 정책관철을 위한 지배인의 사고방식 만 보아도 그렇다. 아침마다 일터를 돌아보는 공장일꾼들의

### 당정책 관철의 표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폐련은 당정책 관철의 요구이며 표대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야심만만 목표, 여기에 공화국의 위상이 있고 우리의 리상 실현이 단관속에서 활력을 잃지 않는 요인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꾼들은 하나의 당정책을 관철해도 올라선 높이에서 지나는 길이 아니라 최첨단을 향하여 부단히 돌진해야 한다. 계절동무지배인이 당정책관철에서 내세운 기준이 바로 그러하다. 천지운활유공장에서 최근 7년동안에 당도 3단계의 비약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발전속도를 압도하는 놀랄만 한 성과이다. 현대적인 유휴용생산공정이 일식으로 완비되며 이어 2차에 걸쳐 생산능력이 확장되어 수백종의 유휴용 생산공정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도 첨단 단위로 올라섰다.

공정에서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개발한다는 조종프로그램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힘을 합쳐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확립하였다. 제품포장공정의 로보트화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도량들이 경사진 골대 흐름선을 타고 이렇게 설계되고 개발되지만 로보트가 마개포장하고 상표 인쇄까지 하는 자동화기술의 높은 경지는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천지운활유공장은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이렇듯 눈부신게 비약적발전을 하게 된 요인이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지배인이 내세운 실천의 기준,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고 폐련을 뛰어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관철 사업을 오늘날이나 미래까지 내다보며 더 훌륭하게 설계하게 되었다. 결과 천지기술연구소에 첨가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이 생겨났으며 활발한 기술준비속에 첨가제생산공정확립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속품들이 넘어오는데 따라 타빈 작업장에서는 조립전투가 다투고 밤이 따로 없이 벌어졌다. 10여이던 긴장한 전투끝에 드디어 개조된 수직복합포가 정상가동을 시작하여 전력중산의 동음을 울리었다. 결실은 컸다. 종전에 비해 붐 프가동에 소비되던 전력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난문제나 나 서고있던 복구기술수위처리문제 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로 하여 저압제생가열기들의 가동이 정상화되어 같은 생산조건에서 도 하루 7만여kWh의 전력 이 더 생산되어나갔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이러한 성과를 만끽하고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력중산의 물과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당정책을 결코 문자로 대하지 않는 지배 인의 투철한 관점과 일본새는 생산물에만 비껴있지 않다. 이 단위를 돌아보면 희한한 생산건물들과 현대화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생산공장 그리고 축산과 수산, 버섯과 은실농사를 비롯한 그야말로 백과전서인 당정책이 어느 하나 빠진데없이 구석구석 까지 관철되고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생산건물과 주변환경을 훌륭히 꾸리는데 그치지 말고 정상관리를 잘할데 대한 정책관철을 위한 지배인의 사고방식 만 보아도 그렇다. 아침마다 일터를 돌아보는 공장일꾼들의

### 당정책 관철의 표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폐련은 당정책 관철의 요구이며 표대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야심만만 목표, 여기에 공화국의 위상이 있고 우리의 리상 실현이 단관속에서 활력을 잃지 않는 요인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꾼들은 하나의 당정책을 관철해도 올라선 높이에서 지나는 길이 아니라 최첨단을 향하여 부단히 돌진해야 한다. 계절동무지배인이 당정책관철에서 내세운 기준이 바로 그러하다. 천지운활유공장에서 최근 7년동안에 당도 3단계의 비약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발전속도를 압도하는 놀랄만 한 성과이다. 현대적인 유휴용생산공정이 일식으로 완비되며 이어 2차에 걸쳐 생산능력이 확장되어 수백종의 유휴용 생산공정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도 첨단 단위로 올라섰다.

공정에서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개발한다는 조종프로그램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힘을 합쳐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확립하였다. 제품포장공정의 로보트화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도량들이 경사진 골대 흐름선을 타고 이렇게 설계되고 개발되지만 로보트가 마개포장하고 상표 인쇄까지 하는 자동화기술의 높은 경지는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천지운활유공장은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공정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이렇듯 눈부신게 비약적발전을 하게 된 요인이 바로 당정책관철에서 지배인이 내세운 실천의 기준,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고 폐련을 뛰어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관철 사업을 오늘날이나 미래까지 내다보며 더 훌륭하게 설계하게 되었다. 결과 천지기술연구소에 첨가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이 생겨났으며 활발한 기술준비속에 첨가제생산공정확립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속품들이 넘어오는데 따라 타빈 작업장에서는 조립전투가 다투고 밤이 따로 없이 벌어졌다. 10여이던 긴장한 전투끝에 드디어 개조된 수직복합포가 정상가동을 시작하여 전력중산의 동음을 울리었다. 결실은 컸다. 종전에 비해 붐 프가동에 소비되던 전력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난문제나 나 서고있던 복구기술수위처리문제 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로 하여 저압제생가열기들의 가동이 정상화되어 같은 생산조건에서 도 하루 7만여kWh의 전력 이 더 생산되어나갔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이러한 성과를 만끽하고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력중산의 물과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투철한 책임감이 없는 비약과 혁신을 기대할수 없다. 지금 공장에서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2단계 능력확장공사는 다시 한번 손수 치게 될 우리 유휴용공정의 폐일을 눈앞에 그려주고있다. 이 지대는 갈밭으로 되어있어 많은 단위 들에서 달려붙었다가 끝내 실패하고 물러 앉은 곳이었다. 여기에 근 10만㎡에 달하는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벌여놓았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지배인이 공명신 에 머시 성사시키지도 못할 일만큼 벌려놓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옷기편의 일꾼들 까지도 현지에 내려와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자금도 긴장한 때에 방대한 일을 벌려 놓았다고 일을 망치려 그 책임을 어떻게 지 겠는가고 충고하였다. 이때 지배인이 조금이나마 당정책관철보 다 자기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마을이 흔들렸다면 유휴용공정발전의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 터전을 타지 못했으리었다. 이러한 불같은 열망이 10년만 파체를 단 3년에 해체할 용단을 내리게 하였고 리상 을 현실로 꽃피도록 열거하게 하였다. 지금 2단계 능력확장공사가 벌어지고있는 건설에서는 현대적인 첨가제생산공정 이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공사가 한창이지 만 규모있게 정리된 구획들에는 벌써 잔디 가 임척되고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렸다. 구내에 새로 형성한 물길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있다.

이렇게 하면 지배인은 벌써 산등성이 에 누구나 부러워할 로동자주력지구를 일떠세울 구상을 펼치고있다. 당정책관철에서 만족을 모르고 세계적인 폐련을 쫓는 목표표에 비약하고 전진하는 천지운활유공장의 현실은 우리 일군 들에게 당정책을 어떤 높이에서 관철해야 하 는가를 보여주는 산교과서로 되고있다. \* \* \*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께 수행님과 장군님의 묘사대로만 하면 우리는 안다 승리한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며 철칙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 을 하시었다. 우리 일군들에게 당정책은 만능의 백과 전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뼈에 새겨주는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천지운활유공장 지배인 계절동무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혼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진수를 뼈와 살로 새기고 당정책 한조항, 한조항을 완벽하게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다면 어느 단위로 조국의 부강번영 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대의 전행단위 로 될수 있다. 이런 일군만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넋일을 받들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가 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리철욱

이런 일군만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넋일을 받들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가 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리철욱

이런 일군만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넋일을 받들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가 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리철욱

## 과학기술의 힘으로 찾아낸 증산예비

### 동평양화력 발전소에서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타빈작업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1호타빈 수직복합포를 개조하여 많은 량의 전력증산예비를 찾아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어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 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 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 여 모두가 합력을 발휘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 지난 시기 타빈작업에서는 수평포를 리용하여 복구기술수위 처리를 진행해왔고있다. 그러나 포의 구조상부품과 제한된 능력으로 하여 수위처리를 제대로 이완히 진행하지 못하고있었

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포를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었다. 나라의 전력문제를 결정적으 로 해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kWh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펼쳐나선 타빈작업 로동계 급의 생각은 달랐다. 포를 증설하면 물론 수위처 리문제는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설비운영과 보 수에서 힘이 많이 들게 되고 자제수전력도 보다 늘어나게 되 지 않는다. 사색을 거듭하던 부직장장 강창남동무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 았다. 수직복합포를 설치하여 전력생산량을 늘이자는것이였다. 직장당조직의 지지와 일꾼들

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강영민, 김덕화, 변광일, 최영일등푸 를 비롯한 보수작업원의 로동계 급도 하고도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아니라는 각오안고 이 사업 에 앞장섰다. 이들은 여러날에 걸쳐 설계도 면에 대한 전방적인 검토를 진 행하는 한편 수직복합포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파 고들었다. 이 과정에 다른 용도의 포들과는 달리 경부하중이 가 없는 수직복합포에서 메달 간구조절이 중요하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포들의 1단, 2단날개의 형태를 합리 적으로 정하기만 한다면 그 성능을 크게 개선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된다고 찾아냈다. 공무직장에서 정밀가공된 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공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입니다.» 물들이 확보되는 종자의 생활력이 그토록 높고 보편적이지만 어떤 문제에 힘을 넣어야 하겠는가? 영광군종자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지혜를 합 치었다. 종자창고의 소독을 잘 하는것과 창고 병충해막이대책 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를 비롯 하여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제 기되었다. 그중에서도 그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창고의 습기를 막아야 한다는 소강 유양기들이 제기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 들속에서는 합리적인 종자들인만큼 습기함량을 낮추는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종자관리소에서는 종자관리소에 습기함량이 1%만 높아져도 습기가 표준보다 10%이상 빨 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 많은 열이 발생하 여 종자들이 변질될수 있다. 결국 종자의 싹트는 힘과 싹트는 힘이 낮아져서 종자발아율이 많이 감소되게 된다. 때문에 종자를 건조할때도 낮은 온도 조건에서 보관해야 잡자기상태 에 들어가면서 습기가 약해지

로 문제될것이 있겠는가고 하면 서 머리를 긁적였다. 이런 그 들에게 그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농작물의 종자는 보관기간에 도 습기를 계속하면서 여러가지 생화학적변화가 오기때문에 품질이 낮아질수 있다. 종자의

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 갔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 수행에 적은 힘이나 이바지할 수없는 열의를 안고 펼쳐나 종자보관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갔다. 누구나 창고안의 온도와 습기가 알맞춤하게 보장 되는가, 요소나 다 잘어놓은 온도와 습도들 에 이상이 없 는가 등을 수시 로 살펴보면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 갔다. 이와 함께 해로운 집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 을 돌리었다. 10월의 대추전장에 맺었던 들이실 한마음과 떨쳐나선 이 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종자보관의 안전성은 믿음직하 게 담보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 기다리지 말고 맞받아나가자

### 북창역 일꾼들의 사업에서

북창역 화력탄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 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을 실은 화차들이 하루에도 수백량이나 오가는 중요위치에 자리잡고있다. 이 역에서 증제시간을 10 분만 줄어도 화차회귀율을 훨씬 단축할수 있다. 최근 이곳 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 동원함으로써 화차증 제시간을 10분이 아니라 한시간이상이나 줄여냈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서는 국가기준의 절반으로까지 단축해놓았다. 같은 량의 화차를 가지고 수송실적을 배로 끌어올리고있는 것과 맞먹는 이 성과도 귀중하다. 하지만 보다 주목되는것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에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이다. 기다리지 말고 맞받아나가자!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스스로 높이 내세운 요구성인 동시에 부단한 실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담보 국가앞 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 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화력탄수송이 본격화되면서 역의 일부는 보다 무거워졌다. 북창의 대동 력기 지어는 날마다, 시간마다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었다. 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매일 많은 량의 화차들을 맞고 보내며 누구나 바빠 돌아갔다. 하여 증제시간은 계획보다 꼭꼭 보장되고있었다. 하다면 그것만으로 자기 책임 을 다했다고 할수 있었는가. 고효적인 실례가 있다. 어느 날 역장 주영일동무는 철도국 사령으로부터 북창화력발전전 합기업소에 석탄을 부러우고 되 돌아오는 수신향의 화차들을 긴급히 받는데 대한 지령을 받았다. 그런데 역에는 어느 한 지역 으로 보내는 중요물동이 방금 도착한 후어서 전용선차장이가 진행되고있었다. 게다가 다른 여러 차장이까지 겹쳐 당장 한 화차들을 받아들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예상치 못했던 정황속 에서 증제시간을 벌려 증제 시간을 보장하는 했지만 역장의 마음은 가버리지 못했다. 시간이 길든짧든 빈 화차들이 지체되었던것만은 부정할수 없

는 사실이었다. 그때도 증제시 간은 어지치 않았다는 위안보다 사전조직사업일 잘 짜고들었어 도 능히 얻어낼수 있었던 시간 을 놓쳐버렸다는 자책감이 랑심 을 절렀다. 왜 할수 있는것을 하지 못했는가. 역일꾼들은 이렇게 문제 를 심각하게 세웠고 원인을 다름아닌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았다. 며칠후 우와 같은 정황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역일 군들이 철도국 사령원들의 긴급 한 편지문에 화차들의 움직임을 30분전에 미리 알고 맞받아나 가며 대차를 세웠던것이다. 언제 어떤 정황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였다. 이러한 결심밑에 일꾼들은 역 주변에서의 화차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장악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였다. 앞서서 기다리는것 과 맞받아나가는것과의 차이는 명백했다. 그것은 곧 화차증제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같은 정황에서의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고

말로만 다지는 결심은 오늘의 풍공격전과 인연이 없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방도를 부단히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야 한다. 일꾼들이 앞서서 차례지는 일감을 기다렸다가 아니라 일감을 찾아 맞받아나간 여기에 북창역 화차증제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되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화차들을 맞고보내는 이 역에서 화차증제시간을 1시간이상 단축했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 수신향의 화차예비를 얻어낸다는것을 의미한다. 년간도 볼 때 수십만의 물동 을 나룰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 는것으로도 된다. 객관적인 조건만을 따지면서 화차회귀수가 변화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이처럼 현실 속에 뛰어들어 중동적으로 그 수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들의 일본새이기도 하다. 기다리지 말고 맞받아나가자! 스스로 무거운 일감을 두어 어깨에 걸머지고 진군속도를 높여나 가는 북창역 일꾼들의 앞으로의 사업이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충성

## 흙도 유기질비료생산원료로

평심시 자산협동농장에서 펼쳐오는 유기질비료생산에 흙을 적극 리용할것이다. 흙집을 깔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흙을 뒤엎어 다시 그루에 흙을 덮어 줌으로써 흙을 더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다. 흙집을 깔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흙을 뒤엎어 다시 그루에 흙을 덮어 줌으로써 흙을 더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다. 흙집을 깔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흙을 뒤엎어 다시 그루에 흙을 덮어 줌으로써 흙을 더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다.

흙이 풍부하면 작물의 영양분이 충분해지고, 흙집을 깔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흙을 뒤엎어 다시 그루에 흙을 덮어 줌으로써 흙을 더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다. 흙집을 깔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흙을 뒤엎어 다시 그루에 흙을 덮어 줌으로써 흙을 더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다.





# 군자리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이 맥박치는 대규모기계제작기지

통 성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 서

##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련 합 기 업 소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통성로동계급이 10월의 대축전장에서 기한 대조전공의 앞장에서 향해 총기 내달리고 있다.

조상기용압축기와 수분바퀴, 미루대차와 비롯한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1월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 굴지의 대상설비생산기지 통성의 막한 승결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주목되는것은 이 성과가 지난 시기보다 더욱 훌륭한 전력공급 조건에서, 열강제와 내화물 등의 자체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이루어졌기라는 것이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이 굴지의 기계제작기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항일의 전에서 창조된 연결축전정신의 계승인 군자리정신으로 살펴 투쟁할 때 발휘될 일이 없다고, 바로 여기에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안아오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의 사업에서 분발할만 한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생산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든것이다.

세계 첫 전투가 시작되던 때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대상설비생산을 일정한대로 다그치기 위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집중적인 생산방법과 교차생산 조직 등 여러가지 절약형의 생산방법들이 나왔다.

여기서 일군들이 보다 중시한것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문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종전의 일본에서 벗어나 화산식정치사업의 도수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기층예술선동대와 방송선전차를 선동위원회에 집중 배치하고 선동구, 제창이아기를 통하여 전회의 그날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한 군자리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본받도록 경제선동의 복소리를 우렁차게 울려다졌다.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내용을 담은 격조높은 화산식정치사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원수적과업 관점에서 펼쳐나선 대중의 무한한 정열을 총발동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실례가 있으면, 련합기업소에서는 전력부하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공분부는 낮시간에, 전력부하가 큰 선공주철공장과 3기계직장은 밤시간에 돌리도록 교차생산을 짜고들었다.

그런데 밤시간에는 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되었다. 그러자 많은 로동자들이 스스로 일터를 떠나지 않고 치열한 생산돌격전에 진입하였다.

다른 로동자들은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W의 전기라든 대상설비생산에 세달라고 부탁하며 소세운반과 원료수송전투에 나섰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보다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야간생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중요한 일군들이 낮시간에 현장에 내려가 참모부적인 계획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결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이 판례였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 도 한가지 주목되는것은 적은 전기와 자제, 로력으로 대상설비생산능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자체기술력량을 총동원한 것이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련합기업소에서는 절약형기술개발을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중점 연구대상으로 정하도록 예견성 있는 작정을 펼치었다.

그리고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오늘날의 막한 투쟁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기술혁신을 내놓도록 모두의 정열력을 총발동해나갔다.

동시에 설계실과 가공실의 기술력량을 보강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인들이 나오면 창조적체제를 모아 가장 빠른 시간에 완성되도록 수시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공공정을 단순하고 전력소비가 큰 주강작업을 제반 작업으로 대신하는 등 복잡적인 기술혁신안이 10여건이나 나오게 되었다.

기계 가공품의 가공될수록 최대한 줄이면서 제품의 질을 담보할수 있는 기술혁신인들이 많이 창안되어 더욱 조직사업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자각된 대중의 정열력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낳았다.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더 높이 올리는 대상설비생산의 우렁한 동음은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낱말이 높아가는 대상설비생산실적을 놓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우리들은 전회의 그날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렇다. 전기가 끊어지면 맨손으로 피대를 당기면서 선반을 돌리고 척수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오직 총, 총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과 탄약을 심어보내 군자리로동계급, 그들의 투쟁정신은 결코 지나간 렉시안이 아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 세계를 나메치는 군자리정신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날의 대조전군을 파죽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데는 다시금 보여 주고있다.

본사기자 신성삼

## 1 제 판 직 장 로 동 계 급 의 투 쟁 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말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욱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됩니다.》

누에게나 조국이 멀거 준 일터가 있고 어깨우에 지워진 임무가 있다.

조국과 나의 일터, 조국과 나의 임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제국주의자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전인 오늘 《나의 일터》, 《나의 임무》의 의미는 더욱 비상해지고있다.

얼마전 북상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낸 중공측생산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시간은 긴급했고 조건은 불리했다. 전례를 따르던 이러한 설비는 주강작업을 통해서만 제작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중공측의 기계가 4m나 되고 구조도 단순하지 않아 목형, 주형, 건조, 사각 등의 공정을 거쳐 여러 개를 생산하자면 두달은 실히 걸려야 했다.

## 1 제 판 직 장 로 동 계 급 의 투 쟁 화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쇠물을 뿜일 전기로도 마음먹은대로 가동시킬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말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욱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됩니다.》

누에게나 조국이 멀거 준 일터가 있고 어깨우에 지워진 임무가 있다.

조국과 나의 일터, 조국과 나의 임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제국주의자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전인 오늘 《나의 일터》, 《나의 임무》의 의미는 더욱 비상해지고있다.

얼마전 북상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낸 중공측생산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시간은 긴급했고 조건은 불리했다. 전례를 따르던 이러한 설비는 주강작업을 통해서만 제작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중공측의 기계가 4m나 되고 구조도 단순하지 않아 목형, 주형, 건조, 사각 등의 공정을 거쳐 여러 개를 생산하자면 두달은 실히 걸려야 했다.

## 1 제 판 직 장 로 동 계 급 의 투 쟁 화

직장장 합성전, 제관3작업반장 박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통공의 굴곡기속이 받는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말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욱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됩니다.》

누에게나 조국이 멀거 준 일터가 있고 어깨우에 지워진 임무가 있다.

조국과 나의 일터, 조국과 나의 임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제국주의자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전인 오늘 《나의 일터》, 《나의 임무》의 의미는 더욱 비상해지고있다.

얼마전 북상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낸 중공측생산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시간은 긴급했고 조건은 불리했다. 전례를 따르던 이러한 설비는 주강작업을 통해서만 제작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중공측의 기계가 4m나 되고 구조도 단순하지 않아 목형, 주형, 건조, 사각 등의 공정을 거쳐 여러 개를 생산하자면 두달은 실히 걸려야 했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안아오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의 사업에서 분발할만 한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 사업에

## 리성남동무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전회의 그날에도 군자리로동계급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지 않았습니가. 우리는 지금 청천강계 대상설비생산

전투로 돌입했고 있는 통성기계 련합기업소내내 승결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벅했다.

더욱 우리를 격동시킨것은 기업소내에서 울리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었다.

가슴에 흥안고 조국의 방성을 지켜선 병사들이 부르노는 노래가 경계강국건설의 격정장에서 울리고있는 현실은 우리를 유다른 격정에 휩싸이게 했다.

련합기업소내내 조국의 방선처럼 느껴졌고 증산투쟁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이 최전방을 지켜선 초병처럼 보였다.

3기계직장 대형선반작업 현장에 들어서면 대형선반으로 청천강계대상설비건설 현장에 보내줄 덩치큰 수분바퀴를 가공하고있다.

알고보니 기존공식으로는 할수 없었던것이었다.

불가능을 모르는 통성로동계급의 이러한 투쟁분배는 어디서나 엿볼수 있었다.

전기가 부족하던 청정기중기를 대신하여 수백kg이나 되는 소재를 인력으로 들어 가공반안에 옮기고 손잡이가 달린 계지를 창안하여 종전보다 가공시간을 앞당기고있었다.

현장에서 만났던 당세포비서

사람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귀중하다. 한생에 다시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나 크나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시대를 맞배어 있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물파건의 선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투쟁과 위훈만으로야 어찌 우리 시대 청춘들이 이름 다올라 다 이야기하랴.

당면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귀중하다. 한생에 다시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나 크나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시대를 맞배어 있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물파건의 선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투쟁과 위훈만으로야 어찌 우리 시대 청춘들이 이름 다올라 다 이야기하랴.

당면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귀중하다. 한생에 다시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나 크나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시대를 맞배어 있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물파건의 선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투쟁과 위훈만으로야 어찌 우리 시대 청춘들이 이름 다올라 다 이야기하랴.

당면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귀중하다. 한생에 다시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나 크나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시대를 맞배어 있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물파건의 선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투쟁과 위훈만으로야 어찌 우리 시대 청춘들이 이름 다올라 다 이야기하랴.

이렇게 내뱉다보니 우리 중대자 사이에 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얼마전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리은하동무와 리정혁동무는 비롯한 중대돌격대원들은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는 그 바쁜 속에서 세로군 중에서 사는 영예군인 로금철동무의 집을 찾지 시작하였다.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이런 생각을 하며 련합기업소내에 나오니 《내가 지켜선 조국》노래가 또다시 울리고있었다.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이런 생각을 하며 련합기업소내에 나오니 《내가 지켜선 조국》노래가 또다시 울리고있었다.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내가 지켜선 조국》

이런 생각을 하며 련합기업소내에 나오니 《내가 지켜선 조국》노래가 또다시 울리고있었다.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에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공정과 기계설비, 제품표준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최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공주철공장에 꾸러진 내화물재료 생산공정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자각된 대중의 정열력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낳았다.》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더 높이 올리는 대상설비생산의 우렁한 동음은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낱말이 높아가는 대상설비생산실적을 놓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우리들은 전회의 그날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렇다. 전기가 끊어지면 맨손으로 피대를 당기면서 선반을 돌리고 척수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오직 총, 총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과 탄약을 심어보내 군자리로동계급, 그들의 투쟁정신은 결코 지나간 렉시안이 아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 세계를 나메치는 군자리정신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날의 대조전군을 파죽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데는 다시금 보여 주고있다.》

《본사기자 신성삼》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에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공정과 기계설비, 제품표준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최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공주철공장에 꾸러진 내화물재료 생산공정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에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공정과 기계설비, 제품표준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최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공주철공장에 꾸러진 내화물재료 생산공정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자각된 대중의 정열력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낳았다.》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더 높이 올리는 대상설비생산의 우렁한 동음은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낱말이 높아가는 대상설비생산실적을 놓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우리들은 전회의 그날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렇다. 전기가 끊어지면 맨손으로 피대를 당기면서 선반을 돌리고 척수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오직 총, 총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과 탄약을 심어보내 군자리로동계급, 그들의 투쟁정신은 결코 지나간 렉시안이 아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 세계를 나메치는 군자리정신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날의 대조전군을 파죽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데는 다시금 보여 주고있다.》

《본사기자 신성삼》

## 자기 식으로 새것을 창조하자

선 공 주 철 공 장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에 꾸러진 공정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가.

공정지배인 리정혁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경험적이기보다는 아주 교훈적이었다.

자기 지방에 온한 규석을 리용하여 내화물재료를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때 공장의 일군들은 환성을 올렸었다. 그것은 내화물제작에 드는

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기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로의 수명도 훨씬 늘일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더욱 흥분시켰던것이었다.

지배인과 공정의 기술일군들은 즉시 내화물생산공정이 꾸러진 자기 지방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였다. 자체로 생산한 내화물의 덕을 토틈히 입고있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아니 자기들의 공정에 또 기술을 한시바빠 도입하고싶은 욕망이 가득차올랐다.

공장에 들어온 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시험생산공정을 꾸리고 내화물생산의 첫걸음을 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내화물의 실수율이 아니라 높이는에 이르러서야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들의 기능부족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내화물을 놓고 첫시작치고는 그만하면 괜찮은것이 아니라고 궁지와 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후회없이 한생을 빛나게 살자면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청천강계대상설비건설이 적극 다그쳐지고있는 소식은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지던 몇몇회는 이날 저녁이었다.

대단기에 오른 강동청룡관광로동자 김해정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청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계단식발전소들을 건설하는것은 아버지장군님의 잔큰 유훈이 아닌가. 그런데 내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몸뚱이처럼 민족대국상의 이날이 다시금 떠올랐다.

《피눈물의 맹세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며칠후 강동청룡관광의 어느 한 방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우리 청천강계대상설비건설사업으로 단원인 해정동무의 그 결심을 지지하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무.》

이렇게 되어 김해정동무는 탄광 일군들과 중일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정은 일터와 회장을 위해 남겨두고 청천강계대상설비건설사업에 떠나갔다.

본사기자 김진옥

부심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었다. 규석덩어리들을 힘겹게 분쇄하여 그 가루를 모으는 시간 불꽃기 보다는 그 반대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다시말하여 규석덩어리들을 먼저 충분히 가열하면 돌망과 같은 송비가 아니라 지금 공장에 있는 불분쇄기를 리용해서도 쉽게 분쇄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자각된 대중의 정열력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낳았다.》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더 높이 올리는 대상설비생산의 우렁한 동음은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낱말이 높아가는 대상설비생산실적을 놓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우리들은 전회의 그날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렇다. 전기가 끊어지면 맨손으로 피대를 당기면서 선반을 돌리고 척수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오직 총, 총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과 탄약을 심어보내 군자리로동계급, 그들의 투쟁정신은 결코 지나간 렉시안이 아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 세계를 나메치는 군자리정신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날의 대조전군을 파죽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데는 다시금 보여 주고있다.》

《본사기자 신성삼》

단위들과 꾸러되는 새로운 내화물재료생산공정이 꾸러지게 되었다.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제작원가가 적지 않은 규석원분쇄를 위한 돌망이 필요없게 되었다. 돌망을 거치지 않으니 그것을 리용할 때 규석 가루에 필수적으로 섞이던 불순물이 없어져 내화물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많은 전기와 자제, 로력까지도 절약되었다.

《그러나 야간에도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기대별, 공정별상태를 손꼽듯 장악하고 보장조건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당책임일군으로부터 부기사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일군들이 한때 단위씩 맡아 로동자들과 그락을 함께 하며 투쟁하니 자제공급을 비롯한 모든 물림사업이 야간에도 원활하게 유지되어 밤시간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최대한 초과하여 리용할수

있었다.》

《그만큼 전기와 열강제, 로력이 절약되어 보다 큰 대상설비생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자각된 대중의 정열력은 이렇듯 위력한 힘을 낳았다.》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더 높이 올리는 대상설비생산의 우렁한 동음은 무엇을 전하고있는가.》

《낱말이 높아가는 대상설비생산실적을 놓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불굴의 정신력보다 강한 힘은 없다. 우리들은 전회의 그날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더욱 빛내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렇다. 전기가 끊어지면 맨손으로 피대를 당기면서 선반을 돌리고 척수가 쏟아져내리는 속에서 오직 총, 총을 부르짖으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과 탄약을 심어보내 군자리로동계급, 그들의 투쟁정신은 결코 지나간 렉시안이 아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에 세계를 나메치는 군자리정신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오늘날의 대조전군을 파죽이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데는 다시금 보여 주고있다.》







# 세계 자유화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 캄보자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캄보자 왕국 국왕 노롬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롬 모니네트 시하누크가 11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각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행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자왕국 국왕 노롬 시하모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자의 노롬 모니네트 시하누크 대왕후께서

우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 대표 단 과 각 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였다.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평화에 대한 애정, 메히꼬로동당,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메히꼬주제사상연구소, 메히꼬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메루공산당(붉은 조국), 메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메루사회혁명당,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메루민족독립운동, 메루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메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메루 김정숙도서관, 메루인민녀성동맹, 메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주제선군정치연구 메루-조선친선협회, 메루 조선친선문화협회 등 메루 정

당, 단체, 기관대표단들, 우간다 전국학생운동 서기국대표단과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공산당원-조선공산당 중앙서기서기 제1부위원장인 우즈베키스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연대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연단 부위원장 굴나라 가나에바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성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 일 동 지 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최근년간 조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경이적인 성과물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할 것이다.

평명성절을 축하하여 캄보자 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 만나련맹련대성발원대대표단, 만나 동종의 학과학원구소대표단이 1월 30일과 2월 11일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대표단 성원들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련맹련대성발원대 양곤 지역위원회 집행위원 린 토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 경추집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라오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추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집회장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건을 소개하는 사진, 도사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장들은 라오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회, 라오스조선친선협회,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 주위원회,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오스트리아공산당, 오스트리아에 있는 김정일주제사상연구

## 우주개발을 다그칠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산 무하니가 17일 한 의식에 연설하면서 우주개발을 다그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우주개발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에 힘을 넣을 결과

##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인도네시아대통령 쥬요 위도가 13일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의 질적발전을 이룩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 제2의 랭전을 불러오는 미사일경쟁

이 신행전략공격무기를 만들어 내면 소련은 즉시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미사일요격체계를 만들어 누가 누가 대결이 그것을 예고해준다.

일차로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은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 대한 반복한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전략적인 힘의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처사에 단호한 군사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재 발효중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은 2010년 4월에 체결된 것이다. 로씨야와 미국대통령들이 서명한 조약은 두 나라가 배제한 전략공기무기축감 조약의 수량이 700기이하로 축감하며 핵탄두는 각각 1550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특히 조약의 서문에는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더이상 증강배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략공기무기를 축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응답 자기 명도태에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소들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미사일방위체계문제는 오래전부터 두 핵대국사이의 애원한 쟁점이 되어왔다. 그 뿌리는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소미대결이었다. 두 나라의 상대방위에 대한 핵공격을 그로부터 피할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요격체계를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미국

## 미국에서 별차전복사 사고로 소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6일 원유를 실은 별차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여개의 차량들이 폭발되면서 원유가 강물에 흘러 들어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공급이 차단된 중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영국 단체들 지지

조선이 해방된 그해에 조선인민의 항도적력이며 조직자인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었다.

공동구호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펼쳐나서자!》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장 전 일흔륙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자!》는 온갖 난관을 파급하고 기어오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역설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공동구호는 위대성교양, 김일성에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이 해방된 그해에 조선인민의 항도적력이며 조직자인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었다.

공동구호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펼쳐나서자!》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장 전 일흔륙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자!》는 온갖 난관을 파급하고 기어오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역설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공동구호는 위대성교양, 김일성에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국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수출 감소

유료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지난해 12월에 수출액이 그 전달에 비해 1.1% 감소되었다.

16일 동맹 통계국이 밝혔다.

## 서 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확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미사일방위 체계전개와 전지구적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도를 전략로케트군과 해군을 포함한 자기의 전략무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우주방위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해 로씨야대통령 부원은 어느 한 회의에서 2016-2020년 무기현대화사업의 중점을 새로운 공적용무기와 정밀방위체계를 갖춘 상용무기를 개발하고 전략 및 장거리 비행대를 재무장시키며 핵억제력 유지와 우주방위체계를 수립하는데 투자 하라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극초음속미사일기술개발에 기초한 자체의 신속타격체계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이 나라의 전술미사일방위체계의 국방성, 공업부업성은 이미 극초음속미사일기술개발에 관한 협의를 이룩하였다고 몇 비행체가 2020년대에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연구제작하고있는 신행중량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는 입의 미사일방위체계도 돌파할수 있으며 2018-2020년에 개발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로씨야가 우주에서의 진출을 강화하고있는것은 미국의 우주 군사화책동에 맞서 강력한 국가로 일떠서려는 완강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에서의 진출을 적극화할 것이며 결코 우주에서 미국대결을 비롯한 나라들사이의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 미국에서 집권자에 대한 불신 고조

미국에서 현 집권자 오바마에 대한 사회적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CNN방송과 여론조사기판인 《KOR인더내슈널》이 발표

## 미국에서 별차전복사 사고로 소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6일 원유를 실은 별차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여개의 차량들이 폭발되면서 원유가 강물에 흘러 들어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공급이 차단된 중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 오늘의 세계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정점인 주목랑마봉을 정복하고 남극과 북극에 도달하였으며 북빙양의 해저에 그 기발을 찾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주세계의 미개척지들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운반기술이 발전하여 유인우주비행과 우주공간에서의 탐측 등이 현실화가능해지고 있다. 인간은 이미 달에 가보았으며 그 정도는 지금에 와서 극히 정상한 것으로 되었다.

단순한 과학기술연구, 탐험의 목적으로 우주여행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나라들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세계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로씨야의 우주진출활동이 속도를 내고있다.

로씨야는 쏘련시기에 세계에

## 미국에서 별차전복사 사고로 소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6일 원유를 실은 별차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여개의 차량들이 폭발되면서 원유가 강물에 흘러 들어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공급이 차단된 중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 제2의 랭전을 불러오는 미사일경쟁

이 신행전략공격무기를 만들어 내면 소련은 즉시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미사일요격체계를 만들어 누가 누가 대결이 그것을 예고해준다.

일차로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은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 대한 반복한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전략적인 힘의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처사에 단호한 군사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재 발효중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은 2010년 4월에 체결된 것이다. 로씨야와 미국대통령들이 서명한 조약은 두 나라가 배제한 전략공기무기축감 조약의 수량이 700기이하로 축감하며 핵탄두는 각각 1550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특히 조약의 서문에는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더이상 증강배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략공기무기를 축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응답 자기 명도태에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소들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미사일방위체계문제는 오래전부터 두 핵대국사이의 애원한 쟁점이 되어왔다. 그 뿌리는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소미대결이었다. 두 나라의 상대방위에 대한 핵공격을 그로부터 피할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요격체계를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미국

## 미국에서 별차전복사 사고로 소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6일 원유를 실은 별차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여개의 차량들이 폭발되면서 원유가 강물에 흘러 들어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공급이 차단된 중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 제2의 랭전을 불러오는 미사일경쟁

이 신행전략공격무기를 만들어 내면 소련은 즉시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미사일요격체계를 만들어 누가 누가 대결이 그것을 예고해준다.

일차로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은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 대한 반복한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전략적인 힘의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처사에 단호한 군사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재 발효중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은 2010년 4월에 체결된 것이다. 로씨야와 미국대통령들이 서명한 조약은 두 나라가 배제한 전략공기무기축감 조약의 수량이 700기이하로 축감하며 핵탄두는 각각 1550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특히 조약의 서문에는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더이상 증강배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략공기무기를 축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응답 자기 명도태에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소들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미사일방위체계문제는 오래전부터 두 핵대국사이의 애원한 쟁점이 되어왔다. 그 뿌리는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소미대결이었다. 두 나라의 상대방위에 대한 핵공격을 그로부터 피할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요격체계를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미국

## 미국에서 별차전복사 사고로 소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6일 원유를 실은 별차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여개의 차량들이 폭발되면서 원유가 강물에 흘러 들어 주민지대들에 대한 물공급이 차단된 중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 제2의 랭전을 불러오는 미사일경쟁

이 신행전략공격무기를 만들어 내면 소련은 즉시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미사일요격체계를 만들어 누가 누가 대결이 그것을 예고해준다.

일차로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은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 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에 대한 반복한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전략적인 힘의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처사에 단호한 군사적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재 발효중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은 2010년 4월에 체결된 것이다. 로씨야와 미국대통령들이 서명한 조약은 두 나라가 배제한 전략공기무기축감 조약의 수량이 700기이하로 축감하며 핵탄두는 각각 1550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특히 조약의 서문에는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더이상 증강배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략공기무기를 축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응답 자기 명도태에 새로운 미사일방위체계소들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미사일방위체계문제는 오래전부터 두 핵대국사이의 애원한 쟁점이 되어왔다. 그 뿌리는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소미대결이었다. 두 나라의 상대방위에 대한 핵공격을 그로부터 피할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요격체계를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미국